西浦漫筆의 內容과 體裁

洪 寅 杓*

1. 引言

金萬重의 字는 重叔, 號는 西浦, 本貫은 光山이다. 仁祖 15年(1637)에 태어나서 肅宗 18年(1692)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禮學의 大家였던 沙溪 金長生의 曾孫이며, 丁丑胡亂 때에 江華에서 殉節한 忠烈公 金益 兼의 次子이다. 母夫人 尹氏는 本貫이 海平인데, 海原府院君 斗壽가 그녀의 高祖, 領議政을 지낸 文翼公 昉이 曾祖, 海嵩尉 新之(宣祖 貞惠翁主의 附馬)는 祖父, 吏曹參判 尹墀가 父親이었다.

이같은 훌륭한 家門에서 萬重은 태어났으나 그의 生涯는 順坦치 못했다. 父親이 殉節할 당시 그는 胎中에 있었으므로 遺腹子로 태어났음을 平生의 恨으로 여겼고 이로하여 그의 母夫人에 대한 효성이 더욱 지극하였다. 丁丑胡亂 당시 兄 萬基는 겨우 다섯살이었다. 母夫人은 亂을 피해 친정에 와서 생활하였는데, 원래 吏曹參判 尹墀의 無男獨女였으므로 萬重兄弟는 外家에서 마치 친손자와 다름없이 지낼 수는 있었으나 參判公이 側室을 두어 得男하고 세상을 떠나자, 從姪을 入養시키고 재산을 分家하니 생활은 더욱 어려웠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金萬重은 특별히 스승을 모시지 못하고 오직 母夫人의 교육을 받았을 뿐이었다. 小學, 史略, 唐詩와 같은 책은 부인 이 직접 가르쳤고, 과부의 아들이란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뼈 에 사무치는 훈계를 받았다. 이때에는 혼란한 시국이라서 책을 구하기 가 어려웠음에도 부인은 孟子, 中庸과 같은 책을 곡식으로 사주고, 左

^{*} 서울大 人文大 副教授

氏傳 같은 책은 高價였으나 질삼을 해서 값을 치러주기도 했다. 또한, 이웃집의 玉堂吏에게 부탁하여 館中의 四書, 詩經證解 같은 책을 빌려 손수 베껴서 주었는데 그 字體가 精細하고 貫珠의 한 획까지도 빼놓지 안했다 하니 그 母夫人의 경성을 짐작할 만하다. 1)

尹夫夫 이외에 萬重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의 伯氏인 萬基이다. 그는 萬重보다 3년 먼저 登科하고 5년 먼저 세상을 떠났으나, 어려서 尹夫人의 가르침을 같이 받으면서 항상 동생을 보살펴 주었다. 그리므로, 萬重은 「나는 어린시절 선생(兄)에게서 배웠다. 선생은 論事文으로는 朱文公, 眞西山을 좋아했고, 叙事文으로는 班史를 좋아했으나 晚年에는 歐會文을 몹시 좋아하였고, 本朝에서는 張谿合詩를 가장 좋아하였다. 文選을 배워 少時에는 謝康樂詩를 모작하여 아주 비슷한 바가 있었고, 近體로는 처음 江西詩派에 主傾하다가 곧 門路가 너무 좁다고 싫어하여 王元美(世真), 胡元瑞(應議)의 說을 취하였으나 晚年에는 陸放敎(游)詩를 읽기 좋아했으므로, 前後의 詩格이 한결같지 않다」의고 하였다. 西浦가 어린시절을 兄과 같이 보내면서 兄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以上의 그 兄이 관심을 가졌던 책들은 그 역시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을 것이라고 집작된다.

萬重 자신도 [내가 공부할 때 성격이 게올러서 程式文卷 짓기를 좋아하지 않고 대로 古樂府, 文選詩를 취하여 읽어 그 一班을 알았고, 이어 朱文公이 鞏仲至(豊)에게 준 論詩文, 劉病翁의 彈箏詩跋文을 읽고서 더욱 詩를 배움에는 이길을 버리면 詩가 될 수 없다고 믿었다.」3 하였다. 이로 보면, 萬重 兄弟는 朱子全書, 中國史書, 唐宋八家文, 文選, 唐宋詩, 江西詩派의 詩文, 陸游, 王世貞, 胡應麟 등 中國詩文을 광설위하게 읽었다 함을 알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詩文이 별루 많지 않은 것은 그들이 學問이나 文學에 전심하지 않고 現實 政治에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

¹⁾ 西消集 卷十 先妣貞敬夫夫行状 补조.

²⁾ 西消集 卷九 先伯氏瑞石先生集跋.

³⁾ 上同,澤齋遺唾序.

金萬重은 顯宗 6년에 登科하여 7년 正言이 되고, 이어 副修撰, 獻納, 司書 등의 官職으로 올라 顯宗 15년까지 10년간은 비교적 순탄한 宦路를 거쳤다. 그러나 仁宣王后가 승하하자 仁祖의 繼妃인 慈懿大妃의 服喪問題로 莽年說을 주장하던 南人과 大功說을 주장하던 西人의 是非가벌어졌는데, 莽年說이 받아드려지니, 宋施烈을 우두머리로 하던 西人은流配 혹은 罷職되는 困境을 당하였고, 金萬重도 削奪官職되었다(1674). 그후 肅宗 6年 庚申大黜陟에 의해 南人이 沒落하고 西人이 得勢하게 되자(1680), 萬重도 禮曹參判, 大司憲, 大提學, 兵曹判書 등의 政治要職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宦海의 물결은 다시 거세게 일어났다.

肅宗 13년 張淑儀 一家에 대한 金萬重의 直諫은 王의 노여움을 사서 宣川으로 定配되었다(1687). 그 이듬해 放還되었지만, 다시 肅宗 15년 王子의 名號를 정하고 張氏의 禧嬪 책봉에 반대한 西人들이 몰락하자, 이를 찬동한 南人들이 도다시 得勢하는 이른바 己巳換局의 政變이 일어 나서 萬重은 南海絕島에 定配되었다.

이러한 患亂中에 그해 弄夫人이 세상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했던 萬重은 葬禮에도 참석치 못하고 流配地에서 號哭哀痛하다가 肅宗 18년 壬申에 母夫人의 뒤를 따랐다(1692). 그러므로 그의 證號를 文孝公이라 하였다. 4)

이상과 같은 黨派의 소용돌이 속에서 浮沈하였던 그였기 때문에 政治에 직접 관련이 깊었던 禮學,歷史,經典 등의 解釋과 그 立場에 많은 관심을 기울렸고, 어지터웠던 政局의 주요문제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皮實과 典籍에 근거를 두고 是非의 판단과 所信의 피력을 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文學的인 著作活動을 하거나 그러한 여유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兩次에 결친 流配生活을 통하여 그의 著作活動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天賦의 文學的 才質을 가진 그는 九雲夢, 謝氏南征記 등의

⁴⁾ 西浦集 卷七 諸疏 및 李弘稙編 國史大事典 各項 참조.

小說과 西浦集에 전해지는 詩文의 상당부분, 그리고 西浦漫筆에 기록된 評論 모두가 流配處에서 저술된 것이다. 그런데 九雲夢을 中心으로 한西浦研究는 이미 國文學界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⁵⁾, 本稿에서 다루려는 西浦漫筆은 그 含有된 내용으로보아 西浦研究에 있어서 더욱 重要한 著作임에도 아직 本格的인 논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⁶⁾ 필자는 앞으로의 본격적인 연구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本稿에서 다룬 내용에 대한 분야별로의 보다 철저한 건토를 고대하는 바이다.

2. 西浦漫筆에 대한 論難

西浦漫筆은 글자 그대로 西浦 金萬重의 漫筆(隨筆)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隨想錄과는 다르다. 일종의 批評을 加한 讀書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金萬重의 다른 著作과는 달리 그가 어떤 批判眼目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典籍을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지적하여 기록하였는가 살피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金春澤은 西浦漫筆을 아래와 같이 言及하였다.

漫筆一書를 살펴보면, 聖賢의 經傳에 희미하게 실려있는 것이나 天人의 性命이 뚜렷한 것이나 禮樂名物이 되는 것 및 歷代 興亡盛衰의 자취, 人事의 得失是非의 歸結, 그리고 星歷, 算數, 山川, 土地, 諸子學, 外國事가 모두 貫穿되어 포괄되고, 論文, 說詩, 諧談, 稗說에 이르기까지 갖추어 있지 않음이 없으나, 마침내는 대부분이 前人의 未發한 바를 發하였다."

⁵⁾ 九雲夢研究(1974)는 丁奎福 교수가, 謝氏南征記研究(Les péregri nations de Dame Xie dans le Sud. 1975)는 佛人 부세씨가 전문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밖에 國內外 學者 250여인이 西浦 金萬重의 小說에 관련되는 論文을 썼다. 새문사 편 丁奎福 해설 〈金萬重研究〉(1983.3) 부록 참조.

⁶⁾ 물론 西浦漫筆의 詩文評論에 대한 一部의 내용에 대하여는 斷章取意式의 불명확한 논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⁷⁾ 西浦漫筆序,試觀於漫筆一書,盖聖經賢傳所載微,而天人性命著,而爲禮樂名物,以及歷代興亡盛衰之跡,人事得失是非之歸,與夫星歷算數山川土地諸子之學外國之事,皆貫穿包括,至於論文說詩,繼以諧談稗說,無不備具,而卒多發前人之所未發.

이에 따르면, 漫筆의 내용은 聖賢의 經傳에서부터 歷史, 地理, 外國事, 論文說詩, 諧談稗說 등 다루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에 前人未發의 견해를 대부분 發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시에 많은 識者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리하여 板刻되지도 못하고 오늘날까지 筆寫本으로 겨우 전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8) 金春澤은 이점을 잘 지적하고,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漫筆은 정말 훌륭합니다만, 다만 의심 스러운 것은 그 講論의 이야기가 先儒와는 異同이 있고, 또 釋氏의 없이 범람한 듯 함은 무슨 까닭이오?」제가 대답하기를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고 한입니다. 程子나 朱子도 經傳 해석에 서로 같지 않했고, 朱子는 延平에게 친히 배웠는데도 서로 論難하여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었으며, 朱子는 더우기, 初期와 晩年의 차이가 있읍니다. 만약 옛날의 荷況이나 明의 王守仁, 요지윽의 尹鐫와 같이 사리에 反背되고 터무니없으며 私的으로 마음대로하여 싸움에 이 걸려고 힘쓴다면 진실로 罪斥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혹 異同이 있다는 것 은 先儒도 면할 수 없었거늘 先生에게 또 무엇을 의심하겠읍니까? 지금 사람 들은 말을 배울 때부터 釋氏를 배척하여 이른바 老師宿儒라도 반드시 釋氏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朱子가 이른바 가만히 앉아서 꺾여 문어진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공을 걷우어드림도 없고, 혹은 과거에 버려 둔것을 잡아드리자 도리혀 우리의 욕이 된 것이라 함입니다. 先生의 뜻은 아마 이것을 병으로 여겨 결국 그 근원을 연구하고 流派를 관석하였으나, 책속에 혹 시 칭찬한 듯한 것은 朱子도 굳이 말하기를 「그 立心의 堅固함과 用力의 精惠 함은 또한 크게 보통사람을 뛰어넘는 것이 있으므로, 결국 하고자 하는 바대 로 실제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先生에게 釋氏說이 범

⁸⁾ 西浦漫筆의 筆寫本은 그 原本을 西浦의 十代孫인 金大中翁이 所藏하고 있었다고 하나 6.25動亂에 분실되었다 하며, 異本으로는 文林社本(上,下一册)騰寫本,高大圖書館職本(上卷)騰寫本,趙潤濟教授職本(上,下二册)手寫本,李家源教授職本(上,下二册)手寫本,任昌淳氏藏本(上,下二册)手寫本이 있다고 丁奎福교수는 任氏本을 通文館에서 影印할 때 解說에서 밝혔다(1971). 그러나, 서울大 奎章閣藏本(上,下二册)이 있고, 이밖에도다른 筆寫本이 있을 것이라고 집작된다. 이들 各 異本을 蒐集하여 그 筆寫의 先後,漏落,錯誤 및 異同을 밝히는 作業이 필요하다.

락했다고 함은 어찌 淺見이 아니겠읍니까?」의

漫筆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첫째 그 講論이 先儒와는 異同이 있다는 점이요, 두째 佛家의 說이 범람했다는 지적이다. 이마 당시 識者들에게는 이것이 눈에 가시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점이 바로 西浦가 前人이 未發한 전해를 發할 수 있었음이요, 獨創的인 卓見을 제기할 수 있었던 所以이다. 李朝時代에 들어서자 抑佛崇儒政策에 따라 土林들은 佛家의 說을 異端視하였고, 주로 宋代의 程朱學派의 禮論과 性理學을 단지 追從하는 데 汲汲하였다. 漫筆의 講論이 때로 先儒들과 異同이 있다 함은 西浦가 이를 그대로 追從하지 안했다는 것이며, 더우기 佛家의 說을 깊이 收容하고 있기 때문에 春澤은 장황한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春澤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한 것이라 간단명로하게 답변을 전제하면서도 비난사항 첫째 異同問題에 대하여는,

- ① 程朱의 釋經에도 異同이 있다.
- ② 延平과 朱子는 師弟之間임에도 論難이 있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
- ③ 朱子는 또 初期와 晚年의 學說에 다름이 있다.
- ④ 荀況, 玉守仁, 尹鐫 같은 邪說을 주장했던 人物은 罪斥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講論에 異同이 있다는 것은 先儒에게도 있었던 일로 의심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였다. 春澤은 당시 士林들이 追從했던 朱子의 예를 들어 西 浦의 입장을 타당시하였고, 또 朱子學의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西浦

⁹⁾ 西浦漫筆序.或有難小子曰;漫筆誠高矣美哉! 但有可疑者,其講論之說時與 先儒異同,又似汎濫釋毛何也? 小子應曰;唯唯,否否. 程朱釋經多相不同, 朱子且有初晚之異. 苟或反背慢誣逞私務勝如古之茍況, 明之王守仁,近日尹 鐫,則固罪也. 不然而或有異同即先儒之所已不免,於先生又何疑焉? 今世之 人,自其學語排釋氏而所謂老師宿儒未必能知釋氏之爲何物, 此朱子所謂無以 坐改摧陷廓清之功,或乃往遺之禽而反爲吾黨之詬也. 先生之意,殆以是爲病, 遂於其學究源而辨流矣. 而書中或有似稱賞者, 則朱子固亦曰;以其立心之堅 置,用力之精專,亦有以大過人者,故能率如所欲而實有見焉. 是以而謂先生 汎濫釋氏,豈非淺見哉?

의 說이 背馳되지 않음을 力說하고 있다. 사실 西浦는 朱子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漫筆에서도 朱子의 學說에 자신의 견해를 피 력한 곳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여기에 異同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荀況, 王守仁, 尹鐫 같은 人物을 罪斥하여야 한다는 論旨를 西 浦가 漫筆에서 開陳한 적은 없다. 孟子一荀況, 朱子一王守仁, 宋施烈一 尹鐫는 서로 極甚한 의견대립을 보인 人物이기는 하나, 그러나 나름대' 로의 主觀과 立說을 남겼던 큰 人物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西浦가 이 들을 反對했을 리는 없다. 西浦는 그러나 傳統儒家와 異端視되는 學說 이나 儀式에는 역시 反對하였다. 다만 西浦의 傳統儒家에 대한 새르운 견해를 당시 儒林들이 異端視하였을 뿐이다. 本源的으로 傳統儒家에 대 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파악이 西浦의 立論이므로, 所謂 異端學說파는 다른 것이다. 비록 異端派의 學說일지라도 그것이 事理에 합당하다면 西浦는 받아드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두째 佛家說에 대하여서도 春澤은,

- ① 지금 사람들은 말을 배울 때부터 佛家를 배척하여 老師宿儒라도 佛家가 무 엇인지 모른다.
- ② 이는 朱子가 말한바 꺾이어 무너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공을 걷우어드 리지 않고, 이왕에 버렸던 것을 잡아드리니 도리혀 욕이 되었다 함이다.
- ③ 西浦는 이를 병으로 여겨 그에 대한 根源과 流派를 연구관석하였다.
- ④ 佛家의 칭찬할 단한 점은 朱子도 칭찬하였다.

라 해명하고 있다. 당시 佛家說을 반대하던 人物들은 실은 佛家에 대하 여 거의 無知狀態에서 佛家의 說이면 무조건 반대한 경향을 지적한 말 이다. 또한, 道佛家의 영향으로 꺾이고 무너진 傳統儒家를 분명하게 되 살리고, 이런 과정에서 朱子도 佛家說에 대하여 때로 칭찬했다는 말을 引用함으로써 朱子學徒가 佛家說에도 취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西 浦는 佛家說을 상당히 깊이 이해했던 것이며, 따라서 佛家와 儒家의 학 설을 비교하거나 활용하여 그 근원과 유파를 분석하는데 卓見을 나타내 었다. 그는 결코 佛家에 耽溺한 것이 아니다. 다만 儒家를 좀더 철저히

인식하기 위한 方便으로 이해했을 뿐이다.

宋代에 유행한 이른바 新儒學은 대체로 禪學의 영향을 받아 發展된 것이고, 이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하여는 佛家說을 깊이 이해하지 않을수 없다. 16) 佛家뿐아니라 諸子百家,天文,地理,外國의 事跡까지 是非를 논한 것도 같은 脈絡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西浦는 당시의 保守的 儒家보다는 훨씬 進步的이고 現實的인 眼들을 가졌던 것이며, 이는당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實學派의 견해와 상통되는 것이다. 11) 즉 實事求是의 정신에서 여러가지 타당한 학설이나 지식을 동원하여 典籍을읽고 그 是非를 評論한 것이다. 따라서 朱子學에 근거를 두면서도 그에 대한 是非를 논했고, 그밖의 士林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여러 문제를 거론하여 다뤘다.

3. 西浦漫筆의 內容과 體裁

西浦漫筆은 上册 104項, 下册 164項으로 총 268項目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는 서로 區分이 되는 짧막한 내용의 評論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것이다. 12) 이제 그 내용과 체재를 上下册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 詩話評論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였다. 13)

¹⁰⁾ 馮友蘭, 中國哲學史 pp. 797-799 참조.

¹¹⁾ 일반적으로 實學派는 李朝 英正祖 때의 柳馨遠, 李漢 등이 淸의 考證學의 영향을 받아 現實生活에 合理的인 方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태의 제도 등을 비판한 一群의 學派를 지칭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운은 壬辰亂과 丙子, 丁丑胡亂을 겪으면서 이미 識者들에게 크게 싹팅던 것이다.

¹²⁾ 지금 筆寫本으로 전해지는 西浦漫筆은 모두 上下 兩册으로 되어 있다. 西浦가 의도적으로 上下册을 兩分한 것인지 그저 分量에 따른 것인지는 확실 지 않다. 奎章閣本과 任昌淳氏 所藏本을 對比하여 보면 上下册의 區分은 같지 않다. 本稿에서는 任昌淳氏 所藏本에 따라 上下册을 區分하여 項目번호를 정했고, 이하 나타나는 項目 숫자도 이를 따른 것이다.

¹³⁾ 拙稿 金萬重의 詩論研究, 省谷論叢 15輯(1984.6) pp. 7-56 참조.

1) 上册의 內容과 體裁

漫筆의 내용이 서로 구분이 되는 짧막한 評論의 연속적인 나열이라 하였으나 이들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體裁에 의하여 編次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上册 104項目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1. 歷史에 대한 評論(42)
- 1. 史實에 대한 是非評論 1-28(28)
- 2. 史書에 대한 誤謬 지적과 그 評論 29-42(14)
- Ⅱ. 儒家에 대한 評論(36)
 - 1. 儒・佛・道家説 43-45(3)
 - 2. 儒家經典(四書三經)의 註, 傳, 諸說에 대한 考證, 批判, 解說 46-65(20)
 - 3. 宋代 儒家의 政治行為論 66-71(6)
 - 4. 壓代 祭禮, 廟禮, 喪禮 72-74(3)
 - 5. 歷代 帝王, 聖賢의 道德論 75-78(4)
- Ⅲ. 禪, 儒學의 接合에 따른 諸說批評(15)
 - 1. 禪學이 儒學에 미친 영향관계 79-85(7)
 - 2. 家廟, 宗孫, 始祖祭 86-87(2)
 - 3. 宋代 程朱學派의 學問道德論 88-93(6)
- ₩. 儒, 佛家에 대한 理想論(11)
 - 1. 儒家의 관점에서의 理想的 人物論 94-99(7)
- 2. 佛家에 대한 관점의 錯誤 지적과 이해 100-104(5)

이상은 필자가 西浦漫筆 上册의 順次에 따라 그 내용을 분류해본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編次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계획적이거나 논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漫筆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일 뿐인데 人為的으로 體系化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스럽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인 編次가 없었다면 順次的인 體系化는 人為的으로도 不可能한 것이다.

우선 上册 104項目은 모두가 中國의 事跡을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라 함을 알 수 있다. I.(1-42)에서는 中國歷史에 대한 評論만을 中國史籍을 중심으로하여 다루웠고, II.(43-78)에서는 道・佛家說이 약간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儒家에 대한 評論을 儒家經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II.(79-92)에서는 禪學의 영향을 받은 儒學者들의 諸說에 대한 批判 및 그들 특히 程朱學派의 行為道德을 논하였고, IV.(93-104)에서는 儒家 觀點에서의 理想的인 人物과 佛家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結論的으로 다룬 것이다. 이는 I.II.에서의 歷史와 經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은 뒤에야 II.IV.에서의 儒・佛家의 接合에서야기된 混亂에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각 단락을 고찰하여 보면 組織的인 編次에 상당한 유의를 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 I.1. 史實에 대한 是非評論은 先秦時代(1-4), 漢代(5-9), 三國時代(10-13), 隋代(16-18), 唐代(19-24), 五代(25-28)의 史實을 時代別로 순차대로 제기하여 이에 대한 諸家의 說(대부분이 宋儒의 說)의 是非를 비판하고 나름대로의 새로운 해석과 평론을 加한 것이다.
- I.2. 史書의 誤謬 지직과 평론은 通鑑・綱日(29-31), 史記・漢書(32-35), 三國志(36-39), 唐宋書(40-43)의 기록상에 있어서의 錯誤, 漏落, 問題點, 前後史書의 改誤處, 표현상의 잘못 등을 지적 시정하였고(29-36), 歷史人物에 대한 行爲是非, 後人의 견해에 대한 論評을 하기도 했다(37-43). 그러므로 후자의 경우(37-43)는 I.1. 史實에 대한 是非評論과 그 논술이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여기서도 史實과 佛敎(禪學)와 관련되는 평론(42-43)을, II.1. 儒佛道家說과 연접시킨 것은 의도적인 編次인 것이다.
- II.1. 儒·佛·道家說(43-45)은 儒家를 중심한 道家(方士) 및 浮屠 (佛家)의 상호관계 및 宋儒와 이에 관련된 是非를 논한 것이다.
- II.2. 儒家經典(四書三經)의 註, 傳, 諸說에 대한 考證, 批判, 解說 (46-65)에는 例外的으로 孝經에 관한 내용이(51) 들어있기는 하나, 이

는 大學에 관한 내용(51.52)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¹⁴⁾여기서는 易(46), 詩(48,49,63), 書(50), 論語(54,55), 孟子(47,53,56,57,59,60,61,62,64), 中庸(58,65), 大學(51,52)의 내용이 作者, 註釋,句證, 原典上의 問題點 및 錯誤의 지적과 解說上의 誤謬 考證 등이 다루워지고 있다. 이중에서 孟子에 대한 西浦의 관심은 특히 두드러졌고, 그 原典 자체에 대한 誤謬지적과 시정은 과감했다.

經典에 대한 評論이 앞뒤로 나타난 것은 經籍의 順次가 아닌 評論의 내용상의 관련에 따랐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宋儒의 孟子(64)와 中庸(65)에 관한 禪學과의 관련된 論議는 II.1. 禪學이 儒學에 미친 영향관계(79-85)에서 다룬 내용과 비슷하다.

II.3. 宋代 儒家의 政治行爲論(66-71)은 上述한 儒家經典論이 儒家理論의 근본적 바탕에 대한 논의라면, 이를 실천에 옮기는 儒家行爲에 대한 批判論이라 하겠다. 따라서 政治의 主役인 帝王과 이를 보필하는 群臣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나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정치적 처신에 있어서의 피차의 禮儀와 法度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비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是非는 II.4. 祭禮, 廟禮, 喪禮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II.5. 歷代 帝王과 聖賢의 道德論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이다.

역기서는 朱熹(65,67,68,70), 程頤(66,68), 王安石(69), 蘇洵(66), 蘇軾(67,68,71), 歐陽修(68), 司馬光(68), 范仲淹(68) 등의 정치행위와 言論, 詩句, 書信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평론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 간의 행위에 대한 是非를 다룬 것도 있고, 各 방면에 나타난 문제를 지적 평론한 것도 있다.

II.4. 祭禮, 廟禮, 喪禮(72-74)는 程頤(伊川) 王安石(介甫)(72), 朱熹(73), 胡寅(致堂)(74)의 이에 대한 制禮와 立設을 評論하였다.

¹⁴⁾ 여기 孝經에 대한 言及은 朱子가 僞書라고 하여, 이를 大學으로 대체한 것에 대한 反論이다.

- II.5. 歴代 帝王・聖賢의 道德論(75-78)은 周 成王의 행위와 周公의 태도에 대한 人物論(75), 孔文子의 悖倫女論(76), 歴代 帝王의 功遇 및 頌詩德碑의 虛實(77), 許由의 人物論(78)을 다룬 것이다.
- II.1. 禪學이 儒學에 미친 영향관계(79-85)는 隋唐代에 儒家와 佛家가 접촉하여 발생했던 諸說이 宋明代에는 이른바 道學으로 發展一新儒學이라 일컬어졌는 바, 이들 道學者와 新儒學에 대한 評論을 다루고 있다. 周濂溪의 太極圖說, 여기서 발전된 邵康節의 皇極經世圖에 나타나는 象數說, 張橫渠의 正蒙에 나타나는 氣性論 등은 禪學의 영향을 받아 易學理論으로 體系化되었지만, 그것은 다시 程氏兄弟를 기다려 명확하게 정착되면서 理心學으로 分派되었고, 伊川의 說은 朱子에 의하여 理學으로, 明道의 說은 陸, 王에 의하여 心學으로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15)

그런데 西浦는 朱子說을 중심으로 하여 整象山(79,82), 程伊川(80,82,83,84), 程明道(84), 도世貞(85) 등의 禪學에 관련된 諸說의 是非를 評論하였다. 특히 朱子가 禪學에 대한 偏見으로 因하여 犯한 잘못을 지적하고 是正한 점은 注目된다.

- Ⅲ.2. 家廳, 宗孫, 始祖祭에 대한 것은(86-87) 伊川의 家廳에 대한 行爲와 그 始祖祭 및 宗孫問題의 是非를 論評한 것이다.
- Ⅲ.3. 宋代 程朱學派의 學問道德論(88-92)은 朱子를 중심으로 한 明道,伊川,濂溪의 학문과 道德(人格)에 관련된 論難이며, 여기서도 朱子의 不當한 면(88),不足한 점(89,90)을 지적하였다. 또한,人倫에 어그러지는 行動을 한 歷代 帝王과 群臣의 事例를 지적하고(93),이는「儒者가 周禮를 옹호하기 위하여 끝내 그 잘못을 말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 또한 한탄스립다.」(儒者為護周禮終不肯言其罪,亦可嘆也)고 하여 宋儒의 禮法施行에 있어서의 諸 問題點을 慨嘆하기도 했다.

Ⅱ의 儒家에 대한 評論이 대체로 傳統的인 儒家經典에 대한 새로운

¹⁵⁾ 蔡仁厚 撰述, 宋明理學 南宋篇 补圣, 臺灣學生書局, 民國 69年 3月 初版。

解釋과 이를 실천하는 儒者의 政治行為에서 나타난 是非를 論評한 것이라면, III의 禪 儒學의 接合에 따르는 諸說批評은 程朱學 특히 朱子學에 焦點을 맞춘 이른바 新儒學의 學說과 이와 관련된 人物의 道德行為論이다. 전자가 대체로 政治的, 公的, 縱的인 論評이라면, 후자는 學問的, 私的, 横的인 論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II.3과 III.3, II.4와 III.2는 類似한 내용이면서도 項目을 달리 羅次하였다고 하겠다.

W. 儒・佛家에 대한 理想論은 지금까지 論議한 내용의 結論이라 할 수 있다.

W.1. 儒家의 관점에서 본 理想人物論(94-99)에서 西浦는 儒家中에서 道・佛家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오면서도 이에 물들치 아니하고 순수 했던 人物로서 顏子, 孟子, 程子, 朱子, 蓋仲舒, 諸葛亮, 司馬光을 들었다(94). 그는 특히 諸葛亮을 가장 높이 推奪하였는데(95), 三代以後에 聖人의 體用을 兼全한 人物로, 宋代의 程, 朱같은 大儒에게도 비교할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이는 西浦가 儒家의 學問 이른바 聖學의 定義를「義理를 밝게 분별하여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머리는 것」(明下義理而趨捨之而已)이라고 하여 學究的인 追求만이 아닌 實踐的인 行動을 重視하였기 때문이다(94).

宋代의 어지러웠던 政治狀況 속에서도 民心을 바로 잡게 할 수 있었던 朱子의 學問的 功勞를 친 것(97)이나, 論語의 「一以貫之」란 말의 해석(98) 및 朱子의 盂子의 門人에 대한 말씨(語氣) 비교(99) 등은 儒家의 理想的 人物에 대한 부분적인 論及이다.

W.2. 佛家에 대한 관점의 착오 지적과 이해(100-104)는 佛家를 儒家의 경우와 비교한데서 잘 나타난다. 즉 釋氏를 伯夷, 柳下惠의 비교하여 「伯夷의 淸과 柳下惠의 和와 釋氏의 悲는 모두가 聖人보다 지나치다고 지나침이 바로 不反함이다. 그런데 하필 釋氏에게만 깊히 혐오하고 크게 베척해야 하나?」(伯夷之淸, 柳下惠之和, 釋氏之悲, 皆過於聖人, 其過便是不及處. 雖然何必獨於釋氏而深惡痛斥哉?)라 한 말에서 西浦의

佛家觀을 집작할 수 있다(100). 佛家의 慈悲精神은 過度한 점이 있지만이것은 儒家에게도 경우에 따라 있는 일이다. 信寒나 柳下惠의 태도도聖人의 입장에서 본다면, 過度한 것인데, 특히 釋氏만을 혐오배척하는 것은 矛盾이란 지적이다. 祖上이나 社稷, 山川에 祭祀지내는 것과 蔣佛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견해도 같다(101). 그러나, 西浦는 儒家에 根本을 두고 諸家의 說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받아드릴 것만 받아드렸다. 그러므로 喪禮나 祭禮에 있어 迷信的인 佛家說과 風水說은 반대한 것이다¹⁶⁾(102).

우리는 朱子가 傳燈錄의 西天祖師偈에 대한 脚韻의 有無로 그것이 華人의 傷作이라고 단정한 것을 西痛가 語學的인 일장에서 反駁한 것과(103), 圖覺經의 文套가 列子와 비슷한 것을 보고는 佛經이 莊列에서 나왔다는 설을 번역자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반박한 것에서도 능히 西浦의 佛家 및 佛經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그 태도의 정확성을 알 수 있다.17)

2) 下册의 內容과 體裁

下版은 上册의 連續이자 上册의 未盡한 부분을 補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上册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은 上册에서는 몇몇 項目의 내용상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나라 사적과 관련된 言及은 있으나, (上册 47.93.103) 전체적으로 본다면 中國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下册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관련되는 사항이 많고, 上册에서는 전혀 言及한 적이 없는 天文說이나 詩話評論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下册의 내용을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I. 佛家를 증심으로 한 評論(14)
- 1. 佛家의 전파와 그 영향(1-5)(5)

¹⁶⁾ 本稿 3, 2), II, 1. 儒者의 佛家説 및 風水説, 西浦漫筆 下册 24, 25, 26, 27, 28, 29項目 참조.

¹⁷⁾ 上揚拙稿, pp. 28-31 참조.

- 2. 朱子說을 중심한 諸家說 是非(6-11,66,89,90)(9)
- Ⅱ, 우리나라 事跡의 考證 및 史實의 論評(12)
 - 1. 佛家說斗 遺跡地(12-14)(3)
 - 2. 功臣手 尊號問題(15-16)(2)
 - 3. 壬辰倭亂斗 丁酉再亂(17-19)(3)
 - 4. 丙子胡亂斗 仁祖反政(20-23)(4)
- Ⅲ. 儒家를 중심으로 한 諧論 評論(18)
 - 1. 儒者 4 佛家 및 風水說(24-29)(6)
 - 2. 隱者斗 好仙說(30-31)(2)
 - 3. 政治成敗斗 天運說(32-33)(2)
 - 4. 儒佛道家說에 관련된 是非(34-35,71)(3)
 - 5. 唐代 帝王斗 天命說 및 群臣論(36-40)(5)
- Ⅳ. 禮論을 중심으로 한 政治的 評論(23)
 - 1. 一般禮論(41-45, 60, 62, 63)(8)
 - 2. 宋儒의 人物行爲論(46-47)(2)
 - 3. 宋明代의 政治逸事(48-51)(4)
 - 4. 李朝時代의 禮論(52-54,59,87)(5)
 - 5. 天文說(55-58)(4)
- V. 新儒學斗 政治人物評論(24)
 - 1. 禪學이 儒學에 미친 영향(64-65,61,88)(4)
 - 2. 宋儒의 政治行為論 是非(67-72)(6)
- 3. 與籍解釋斗 ユ 誤謬 是正(73-79)(7)
- 4. 天文證(80-86)(7)

M, 詩話評論(74)

- 1. 政治의 詩論 是非(91-94)
- 2. 中國詩文 評論(95-97)
- 3. 東入詩斗 中國詩 比較(98-100)
- 4. 諸家의 詩評例와 西浦의 評觀(101-104)
- 5. 西浦의 東人詩 評論(105-109)
- 6. 詩人의 才質과 詩評論(110~114,118)
- 7. 女人詩論(115-117,119-121)
- 8. 中國詩評 是非(122-126)
- 9. 先後輩 詩人論(127-129,132)
- 10. 王世貞詩 評論(130-131)

- 11. 詩의 窮語, 哀詞, 挽章(134-137,160)
- 12. 朱子說을 중심으로 한 詩論是非(138-141)
- 13. 詩人의 自負心과 氣象論(142-145)
- 14. 東岳, 白洲詩論(146-149, 152)
- 15. 中國詩 評論 是非(150-154)
- 16. 李達, 忘軒, 松江詩歌論(156-159)
- 17. 詩(文)人斗 女人論(161-163)
- 18. 文論 및 小說論(95,164,133,154,155)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는 上册에 연속된 새로운 추가부분이 下册의 I, I, II, II이라면, 上册에서 未盡한 내용의 보충부분이 下册의 III, IV, V이며, 여기서는 上册보다는 現實的이고 實質的인 것을 다루고 있고, 唐代 이전의 사실이 論及되기는 하였으나, 주로 宋代 이후의 사실을 다루고 있음을 알수 있다. 上册에서의 論議가 原論格이라면 下册은 實際論이라고할 수 있다.

下册에서도 II. 우리나라의 史跡考證 및 史實論評(12-23)이 時代別로 내용에 따라 編次되어 있고, VI. 詩話評論은 비록 그 내용이 組織的인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징도 내용별로 구분이 되어 後尾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下册 역시 의도적인 編輯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上册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組織的인 編次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로, IV.5, V.4.의 天文說(55-58,80-86)이 主題와 관련없이 뚝 떨어야 있다던가, IV.1. 一般禮論(41-45)에 연접되어야 마땅할 것(60,62,63)과 IV.4. 李朝時代 禮論(52-54)에 소속되어야 할 것(59,87) 등이 동떨어지게 기록된 것 등에서도 筆寫者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16)

¹⁸⁾ 筆寫者의 誤記, 예를 들면 下册의 55. 「他處言夫象亦主右旋」에서 夫는 天의 誤記이며, 申混을 中混으로(121) 西坰을 西恫으로(143,144) 잘못 기록된 예가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字句上의 誤記가 아닌 項目次序를 뒤바꾸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찾기는 곤란하다. 지금까지 上下册의 體裁를 검토한 결과 上册과는 달리 下册에 상당한 문제점이 내용상에 발견되나, 이것이 西浦 자신이 원래 생각없이 그랬던 것인가고 믿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下點의 내용을 順次的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 I.I. 佛家의 전파와 그 영향(I-5)은 上册의 未尾의 이어지는 내용이 다. 佛家의 週期説에 따라 中國에 傳來된 이후의 變化週期를 찬정하여 논한 것(1)과 道家系의 方士가 佛說을 輟抬하여 改頭換面한 것, 儒家와 融合モ ス(2) 및 圓覺經의 疏에 따라 西竺語의 體用分別, 中國語勢와 비교하여 儒佛家의 전파와 그 영향관계를 논힜다(3,4,5).
- I.2. 朱子說을 中心으로 한 諸家說 是非(6-11,66,89,90)는 朱子가 佛家와 관련하여 東坡를 歐曾下로 평가한 것의 부당함(6), 胡應麟의 木 關辭의 時代考證에 대한 是正(7), 周易 八卦의 佛家의 四大에 대한 것 을 朱子의 論九天剛風之說과 비교 그 相關性을 논하고(8), 또 天下의 三大水, 揚子江 黃河 混同江에 대한 朱子說에 대하여 錯誤을 지적하 고(9), 그런 說은 風水家의 三幹龍說, 方術家의 虛說에 기인한 착각임 을 밝혔다(10). 이어 禹貢의 黑水와 弱水에 대한 기록과 經文의 착오도 시정하였다(11). -
- Ⅱ. 우리나라의 史跡考證과 史實論評에 였어서도 Ⅰ.의 佛家를 중심 한 내용과 이어진다. 그리므로 佛家說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이루었다.
- II.I. 佛家說과 遺跡地에서는 高麗 太祖의 父代 人物인 道詵이 唐 開 元時의 一行에게서 佛法을 전수받았다 하나 이는 200年의 年差가 나므 로 奸僧의 欺世일 뿐이며, 休靜集의 그의 기록도 엉떠리라는 것과 李太 祖가 無學太師의 解夢을 듣고 지었다는 安邊의 釋王寺는 실은 釋天王의 뜻이라 해명하였다(12).

또한, 平壤城 밖에 東明王의 宮井과 朝天石, 猉獜窟이 있다 하나, 東 明王代에는 漢四郡이 설치되어 平壤城은 樂浪太守의 威勢가 멸청으므로 여기에 離宮別館을 지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13), 高朱蒙이 平壤에 도 읍하기 이전에 있었던 丸都城은 압특강 서쪽의 皇帝陵이 아닌가 했다 (14).

Ⅱ.2. 功臣과 尊號問題에 대하여, 西浦는 明宣祖代의 譯官 洪純彥의

奇談을 먼저 소개했다. 그가 中國에 갔을 때 妓館에서 流落失身한 良家 女子를 百金을 주고 구한 적이 있었는데, 후에 禮部侍郎의 妻가 되어 그 도움으로 宗系誣誤의 本末을 大明會典에 頒布할 수 있었고, 이로하 여 光國三等勳, 唐城君에 봉해졌다는 것이다(15). 그러나, 朱子가 「表 箋은 臣이 君에 아첨하는 글이요, 制誥는 君이 臣에 아첨하는 글이라.」 (表箋是臣諛君, 制誥是君諛臣)고 말했듯이 君王의 傳號의 人臣의 功臣 號 역시 같은 것이다. 이는 唐 中葉 昏主에게서 나온 제도로 今典이 아 니라고 반대하였다(16).

II.3. 王辰倭亂과 丁酉再亂에 대한 論評은 당시 조징의 조치에 대한 是非를 따진 것이다. 倭軍이 明을 치려 길을 빌린다고 하여 우리 조징에서 이를 반대하고 싸우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하고 모든 조치와 행동을 한 것은 큰 失策이다. 倭侵은 우리나라 攻略이 目的이었고 明을 치겠다는 것은 완전한 구실였다는 지적을 했다(17).

또한 栗谷의 十萬養兵論은 그의 能力이나 先見之明으로 보아 훌륭한 주장이지만, 그가 壬亂 10年前에 卒하였으며, 10年間 養兵을 계속하였 다면, 당시 財政으로 보아 극심한 民弊를 가져와 逆效果를 가져왔을 것 이라는 지적을 했다(18).

丁酉再亂 때의 明將 楊鎬와 島山戰果 및 丁應泰의 行動, 光海君 때明將 毛文龍과 袁崇煥에 대한 論評도 그들의 입장에 따른 색다른 지적이다(19).

II.4. 丙子胡亂과 仁祖反政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逸話의 기록이다. 丙子胡亂 때의 海昌君 尹履之가 淸帝의 九王을 만나 당당했었다는 소문이 中國에서만 알려진 사실(20), 白沙 李恒福이 北青에서 御殿會議를 현몽하고 죽음을 예언하고 卒했다는 이야기(21), 長陵君(仁祖)이 金塗의 私第를 방문했을 때, 그 夫人이 꿈속에 袞龍袍를 입었던 人物임을 말하여 擧事를 서둘렀다는 이야기(21), 仁祖反政 數日前에 卜者에게 물어 成事를 확시케 하였다는 이야기(22) 등을 적고, 이들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疑心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擧事를 서두르게 하는 方略이었다는 지적을 했다. 또 仁祖反政 당시 朴瀰와 그 아버지 朴東亮의 失言失手,仁獻王后 貞安翁主 그리고 義昌君과 그 夫人에 얽힌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다(23). 이상 國史의 관련된 내용은 正史가 아닌 野史와 逸事를 주도 하여 대체로 時代別로 간략하게 言及한 것이다.

- Ⅲ. 儒家를 중심으로 한 諸家說 評論은 모두가 中國의 唐宋人物이나 帝王의 史跡을 다룬 것이다.
- II.1. 儒者와 佛家 및 風水說은 唐 韓愈의 論佛骨表와 朱子의 山陵疏에 대한 反駁에서부터(24), 佛法이 中國에 전태된 淵源과 時代를 밝혔고(25), 帝王의 年促은 宮中의 사치와 음난 때문임을 지적하고(26), 佛教傳來가 唐宋代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하였다(27).

西浦는 唐宋의 佛家를 논하여 唐은 侫佛邀福이나 因果應報說에 기울어 보잘 것 없고 宋代는 深淺은 있으나 淸淨에 근본하고 定力을 발하여 言論政事에 탁월한 점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27). 또한, 宋의 儒佛이 接合하는 과정에서 王安石이나 蘇東坡는 儒佛을 混合했으나 區分이 가능하고 程門諸公은 區分이 不可能하며, 陸象山, 楊慈湖는 그 混合이 拙直하여 完全하지 못하다고 論評하고, 佛家의 영향을 받은 程門諸公이이른바 新儒學을 傳來의 秘方을 찾아낸 것이라 豪言함을 批判하고, 新儒學의 各派가 나누어지더라도 洛閔派(程朱派)가 正統으로서 佛家도 여기에 歸屬될 것이라 하였다(28).

또한, 聖賢의 알 수 없는 일로 孔子의 子路에 대한 조치, 朱子의 山 陵疏에 얽힌 季通과의 관련을 지적하여 儒家에 있어서의 不得己함과 失 手를 논하기도 했다(29).

II. 2. 隱者와 好仙說(30-31)은 唐 肅宗때 李泌이 入相을 거부하고 隱居한 것이 好仙했기 때문이라 하나, 실은 참소를 받아 죽일 것을 두려워 했음이다(30). 杜甫의 寄韓諫議詩도 言官인 韓이 李泌의 氣風을 나타내어 天子에게 알리도록 독촉한 시라 단정하였다(31).

- III.3. 政治成敗와 天運說(82-33)에서, 周公이 管蔡의 亂을 평정한 것은 天命에 따른 것이며, 蔡氏傳의 誤釋과 朱子說의 合當함을 西浦 자신의 견해와 더불어 지적하고(32), 宋宣仁때의 孟后의 賢明함을 논하면서 여기에는 天意가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 하였다(33).
- II. 4. 儒佛道家說에 관련된 是非(34-35)는 먼저 儒佛家에 대하여 朱子가「儒家는 마음을 깨우쳐 많은 道理를 비추어보나, 佛氏는 헛되히 깨우치고 여기에 하는 바가 없다」(吾儒喚醒此心, 照管許多道理. 佛氏空喚醒, 在此無所作為)고 한테 대하여, 西浦는 이를 거울에 비유, 「거울을 가는 전문가(磨鏡師)는 거울을 갈아서 간직할 뿐이지만, 이를 배운사람은 이를 가지고 옷을 단정히 하고 의모를 고친다」(其師磨而匣之而已, 學焉者以之整衣冠而別姸鱧)라 하여 그 용도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스승을 기괴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였다(34). 이는 程朱學派가 禪學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을 비방하고 또 忌避하여 傳來의 秘方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과 同軌의 말이다.

또한, 朱子가 孟子는 楊朱를 배척했으니 곧 老子를 배척함이라고 파악한 것은 큰잘못이라는 것이다. 老子는 孔子도 스승이라 여겼고, 孟子는 감히 言及도 안했으나 楊朱는 孟子는 물론 莊列子書에서조차 言及은 되었으나 尊重은 아니했다고 지적했다(35).

Ⅲ.5. 歷代 帝王과 天命說 및 群臣論(36-40)에서 西浦는 陰陽家의 風水說이나 佛家의 因果應報說은 排斥하였으나 儒家의 天命說은 의심치아니하였다. 그는 姬周의 天運이 궁하였으므로 徐偃王이 王이 될 수 있었고, 隋煬帝와 다를 바 었는 唐太宗이나 明 高皇帝가 天下를 차지할수 있었던 것을 모두 天運으로 보았으며, 楊玄感, 陰世師, 唐 高祖, 太宗의 行為는 政爭의 人物이 死後를 생각하지 않는 相互報復의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37), 또한, 唐 德宗과 憲宗의 경우, 德宗은 伐叛에 累敗하여 신중을 기히 자신을 保存할 수 있었으나, 憲宗은 요행히 승리하여 교만해져서 宦官에게 弑害되었다고 지적하고, 憲宗 때의 流配

된 人物(八司馬)를 可懲하다고 한 韓愈를 時勢에 俯仰한 人物로 酷評하고, 呂溫을 柳宗元은 聖人처럼 여겼는데, 그의 諸葛亮을 논한 글을 보면 疑心스럽다고 하였다(38). 이어서 韓愈의 李虛中墓誌를 보면, 그의 下衙이 萬不失一二하다고 했다는 말로 韓愈를 名利를 벗어나지 못한 人物로 評論하였다¹⁹⁾(39).

IV. 禮論을 중심으로 한 政治的 評論은 中國의 禮의 李朝의 禮를 나누어 다루고, 여기에 宋明代의 人物行為와 政治的인 逸事까지 포함시키고, 天文曆法도 같이 덧붙였다.

W.1. 一般禮論(41-45,60,62,63)은 첫째 葬禮에 관하여,朱子가 母夫人을 各葬한 예를 따라 사람들이 各葬하지만,朱子는 遺言을 따른 것이다. 마음이 어진 사람은 合葬을 바라고 성격이 활달한 사람은 各葬을 바란다. 遺言을 따름은 옳지만,風水說에 따라 各葬했다면 朱子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41).

또한, 三代에 나온 禮는 옳고 秦漢以後의 禮는 그르다고 하는데, 그 까닭을 알아야 하지 무조건 후대의 것은 그르다고 함은 잘못이며, 古今 禮를 살펴 자신의 전식과 기준에서 聖人의 뜻과 합치되는가 여부를 살펴야 비로소 禮를 논의할 수 있다 하였다(42).

論語의「宰予晝寢」이란 말을 朱子는「낮에 잔다」하였으나, 낮잠을 한 번도 자지 않는 사람은 없다. 禮記에 낮에 內室에서 지낼은 問病할 때 나 된다 하고 內室은 바로 잠자는 中心이라 하였으니 宰予가 晝夜로 內室에서 지낸 것(好色)을 孔子가 꾸짖었다고 해석했다.(43)

또한, 程子는 禮를 모르던 莊子를 보고 才性이 있으면 蘇文을 읽지 말라 하였으나 요지음 사람들은 그 반대라고 지직했다(44).

¹⁹⁾ 韓愈와 柳宗元에 대한 評論은 時代別로 사람에 따라 달리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韓愈를 높이 評論하는 경향이었으나 西浦는 韓愈를 時勢의 名利에 俯仰한 人物로 酷評하였다. 물론 柳宗元도 西浦가 高評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점에 대하여 韓愈研究(羅聯添著 臺灣 學生 書局 民國 66年 11月), 拙著 柳河東詩研究(서울 瑞麟文化社 1981) pp. 313-314 참조.

孔子가 春秋에서 魯君의 被殺 사실을 忌렀다 하여 歐陽修가 五代史들 그렇게 쓴 것은 禮에 맞는다 할 수 없다. 孔子는 弑君의 直書를 찬양했 고, 그래야만 討罪할 수 있다는 것이 春秋筆法이라 했다(45).

宋 襄公의 出師에 대한 穀梁氏와 左氏의 해석은 左氏가 不當하다. 左 氏의 兵不厭詐說은 不正하기 짝이 없다. 春秋는 사실의 기록일 뿐인데, 褒貶이 없는 내용을 短處를 내세워 長處를 잘못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60).

秦漢以來의 封禪事는 帝王이 太平을 고하는 일이외에 民事, 제후의 성적 등을 고했을 것이니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것이 盛行하였. 다는 說과 없었다는 說을 부정하면서 지적하였다(62).

宋 襄公 29年에 吳子 餘祭가 죽고 夷昧가 嗣君하니 季札은 各國에 이 를 통보하다가 衛國에서 葬前宴樂을 보고 비방하였는데, 자신의 請樂한 것과는 모순된 일이라 하나, 季札은 당시 卒哭으로 喪禮들 끝냈으므로 그가 葬前宴樂을 비방했고, 자신의 請樂은 卒哭 뒤에 속하기 때문에 문 제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63). 이상은 정치와 관련된 古代 中國의 禮 論이라 할 수 있다.

- Ⅱ.2. 宋代 新儒學派의 人物行為論(46-47)에서, 西浦는 王安石은 新 經으로 取士하여 學者들을 秀才로 변화시키려다 반대로 되었고, 程伊川 은 明道學으로 禪學을 儒學으로 만들려 했으나 失敗했으며(46), 또한, 程伊川과 朱文公, 劉元城과 蘇東坡의 晚年 氣象으로 보면 朱藍의 學力 이 程劉에 不及한듯 하다 하면서도 이를 認定하지는 아니헸다(47).
- ₩.3. 宋明代의 政治逸事(48-51)로는, 明 惠帝 建文君이 在位 5年에 失國潛跡하였는데 그가 僧侶가 되어 宮中에 잡혀와 죽었다는 說에 대하 여, 이는 愚智을 희생시켜 民心을 安定시키려 造作된 일일 것이며, 建 文君의 기록이라는 것도 僞作일 것이다(48). 그러나 天子가 失國하고서 도 生命을 保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寬厚仁弱하여 人心을 잃지 안했 던 때문이라고 하였다(49).

또한, 宋代의 趙鼎(忠簡)과 岳飛(武穆)에 대한 朱子의 評이 未洽함은 그들과 다른 路線의 인물인 張浚(魏國公)과 그 후손 張稱(南朝)의 말을 듣고 판단했던 때문이며(50), 이는 鰲城(李恒福)이 漢陰(李德馨)의 말을 믿고 小官을 잘못 任用했던 失手와 비슷하다 하였다(51).

W. 4. 李朝禮論(52-54,59,87)으로서 山陵祭에 素饌을 쓰는 것은 麗朝의 禮틀 다른 것으로,이는 漢魏代 및 宋代에 僧齋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世宗때에 黃喜가 전의해서 된 것이라는 說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52). 또한,李朝 初期의 文昭殿의 祭禮는 宋太祖의 太廟時享과 같이날고기와 익힌 제물을 合設하였으나 王亂 후에 폐지했고, 山陵의 石室도 폐지하였는 바 이는 財力의 소모로 인한 것이지만,風水說에 따라石灰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하여 草根이나 水惠을 막는 것도 아니함은잘못된 일이라 지적하고(53), 喪服의 差異나 石獸의 等次가 身分에따라 달랐으며 달라야 하는데 이 制度가 無秩序해졌다고 지적하고,또 喪中에 喪을 당하면 素食으로 제사해야 된다는 說을 반박했다(54).

七去之惡과 三不去에 관련하여 丙子, 丁丑胡亂에 연루된 婦女를 淫亂으로 보아 黜斥함은 不當한 일이라 지적하고(59), 또 우리나라의 深衣制는 大明會典 및 朱子家醴에 深衣圖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 것은 明代制度를 본딴 것이지만, 中國의 深衣는 宋以後에 달라졌으므로, 우리는 先人의 例를 따르고 宋代의 달라진 것을 따르지 않했던 것임을 해명하였다(87).

W.5. 天文說은 日月星辰의 운행과 四時節候에 따른 天地法度를 重視하는 경향에서 이 역시 禮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한다. 그런데 西浦가 다룬 天文說은 이와 직접적인 相關이 되는 것은 아니다.

七緯(日, 月, 五星)가 左旋하는 것인가 右旋하는 것인가에 대한 朱子 張橫渠, 蔡九峯의 說을 들고, 이것은 마치 개미가 左旋하는 쳇바퀴를 右旋하면 결국 左旋하는 것처럼, 右旋하지만 하늘이 左旋하므로 결국 左旋하는 것이라 지적했다(55).

蔡九峯의「햇빛(볕)은 완전한 하루만에 당을 한바퀴 돌고, 달 그림자는 완전한 한달만에 해와 서로 만난다」(日陽精一日而繞地一周, 月陰精一月而與日相會」라는 말은「햇빛(볕)이 완전히 당을 한바퀴 돌아야 하루가 되고 달그림자가 완전히 해와 만나야 한 달이 된다」(日陽精繞地一周而爲一日, 月陰精與日相會而爲一月)란 말이 더욱 정확하다는 지적이다(56). 西浦는 地球의 自轉說을 이해했던 것이다.

또한, 中國 傳來의 盖天說과 渾天說의 不合理한 점과 西洋 歷法의 정확함을 지적하여 中國의 그것은 맹인 코끼리 만지는 격이라 하였고(57), 또 西洋의 經緯度 劃定의 合當함, 地球가 圓形임, 地動說 등을 朱子가말한 것에 탄복하기도 했다(58).

- V. 新儒學과 政治人物評論은 상호 연관되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下册 後半部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漫筆의 형식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 W.1. 禪學이 儒學에 미친 영향(61,64-65,88)에 대하여,西浦는 程門 諸公이 禪學의 포현을 儒家의 말르 換面하였지만,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를 지적하고(61), 佛家의 定慧法門은 精確微妙하여 儒家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中庸의 戒愼이나 大學의 格致에 해당됨이 있으나 格物의 字意가 不明하여 朱子는 平生의 精力으로 新儒學의 門戶를 성립시켰다는 것이다(64). 曹溪門下의 知解宗인 荷澤神會가 數傳되어 圭峯,宗密에 이르러 定慧로 心의 體用을 삼았고, 朱子는 周易의 寂感二字로代用하여 心學의 妙訣을 얻었으니 宗密이 儒門에 끼친 功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65).
- V.2. 宋儒의 政治行為論 是非(67-72)는 주로 宋代의 政治家의 論說을 비판한 것이다. 王安石이 論孟嘗君에서 齊가 겨우 鷄鳴狗吠의 人物만 얻었다 했지만, 宋 宣政時代에는 그런 人物조차 없었다고 비판하고 (67), 또 韓愈에 대한 東坡의 潮州碑文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 하였

다(68).

唐五王論에서 五王의 行動을「人心과 天理는 푹 一致하는 것이 아니 므로, 人心에 이끌려 天理를 어둡게 함보다는 天理를 밝혀 人心을 따르 게 함만 같지 못하다.」(人心與天理有時而離合,與其昧天理而荀循人心, 曷若明天理以正人心乎)는 주장으로 비판하여, 이에 대한 胡致堂의 說을 반박하였다(69). 또한, 唐 呂后에 대한 平敦과 狄張의 태도는 큰 차이 가 있으나, 그들의 唐朝에 대한 內心은 꼭 같았다. 그러므로, 宋儒들이 平敦을 억구르고 狄張만을 찬양함은 잘못이라 하였다(70).

夷惠楊墨은 大賢이나 中庸의 道가 아니므로 편벽됨이 있고, 그 피해 도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병에 따라서는 毒藥도 필요하듯이 敎化에 도 움이 딀 경우도 있으므로 韓愈, 黃庭堅, 朱子도 칭찬한 점이 있다. 따 라서 老佛을 무조건 배칙함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71). 히는 W.4.에 서 다루어야 알맞는 내용이었다.

孫權이 稱帝하자 蜀漢의 群臣은 絕交를 요구했으나 諸葛亮은 오히려 축하하고 和親을 강화하였다는 사실을 들고, 우리나라의 丙子胡亂에 主 和派와 斥和派가 다투었으나 國家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斥和보다는 主和 가 필요했다고 하고, 張維의 三田碑文을 쓴 이유도 여기서 찾았다(72).

V.3. 典籍解釋과 그 誤謬是正(73-79)은 실은 典籍이라기보다는 詩文 句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내용이다.

韓愈의 馬少監墓誌의 結語에 대한 朱子의 잘못된 해석(73), 또 與孟 郊書의「與之語,雖不盡解…」에서 雖~이하의 主語가 朱子는 韓愈 차신 이라 하였으나 太顚을 가리킨 것이라 是正하였다(74).

또한,論語의「斐然成章,不知所以裁之」말의 새로운 해석(75),朱子 의 齋居感遇詩는 그 표현이 의심스럽고, 參同契 註 역시 朱子를 托名假 姓한 것으로 僞作일 것이라 하였다(76).

또한, 詩經의 關雎篇에 「窈窕」란 말에 대하여 先儒들의 해석을 시정 하여 풀이했고(77), 朱子語類 52卷의 孟子의 「浩然之氣」에 대한 問答에

서 朱子의 말은 孟子의 뜻이 아닌 것 같은 달이 있지만, 孟子의 本意에는 맞는 하석이라 지적하고(78), 論語의「繫而不食」이란「박이 매달리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박이 매달려 먹히지 못한다」는 뜻으로, 세상에 쓰이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라 해석하였다(79).

V.4. 天文說(80-86)은 앞 W.5. 天文說(55-58)과 특별한 내용상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朱子와 伊川의 天地方位의 位置에 대한 說(80)과 南九萬과 朱子의 日月中의 黑影에 대한 주장을 소개하며,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 평하고(81) 아울러 水中에서 달을 바라보는 것과 물 위에서 보는 경우와 차이를 말하여 詩人의 잘못을 지적했다(82).

또한 朱子의 天正色은 黑洞洞이란 말을 谿谷漫筆에서 판석한 것을 다시 반박하고(83), 蔡九峯의 앞 日月說을 애매한 것이라 했다(83).

冬夏의 寒暑는 太陽과 地球의 거리 遠近 터문이란 說에, 거리는 마찬가지나 日射의 角度 때문이라고 하면서, 列子의 室內 炎凉에 대한 것도 같은 이치임을 설명하고, 日出時의 해가 크게 보임은 水土의 淸濛한 기운이 안경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함을 밝혔다(84).

우리나라 東海에 海潮가 없는 이유로 白沙는 水歸說, 谿谷은 水背說을 주장했음을 반박하여 地勢說을 주장하고, 張谿谷의 地載海說을 찬양했다(85). 아울러 浮地說과 地載海說을 土性에 의해 관석하였다(86).

이어 深衣制를 논하고(87), 明道, 伊川, 橫渠, 季通의 心性情에 대한 주장과 朱子, 象山, 邵雍의 諸論을 요약한 후에 朱子가 伊川의 設을 獨取한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였는데, 深衣制는 W.4. 李朝禮論(52-54)에, 朱子의 伊川說을 따른 내용은 W.2. 宋儒의 人物行爲論(46-47)이나 V.1. 禪學이 儒學에 미친 영향(64-65)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다.

朱子의 筮儀는 卦의 變爻로 四五에 이르러서야 占의 卦라 하였는데, 이는 우리 先儒들이 범연히 본 잘못임을 지적하고, 自明한 이치이므로 朱子가 설명하지 안했던 것이라 했다(89).

上古代에는 모든 일이 義理가 애매하여 吉凶을 점쳐 행했으나 지금은

義理가 분명하므로 분명치 못한 것만 특별히 점친다는 것이다(90). 위의 2項 역시 소속시키기가 애매한 것이다.

4. 結語 및 添記

이상에서 필자는 詩文評論 部分(下册 91-164)를 除外하고 西浦漫筆의 모든 項目을 순차대로 검토해 보았다. 여기서 필자는 그것들이 단순한 西浦의 漫筆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내용과 체제가 상당히 意圖的이고 組織的으로 編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上册 104項目은 모두 中國의 事跡이 주로 다루워진 내용이다. 項目 1-42는 中國歷史에 대한 評論만을 中國史籍을 중심으로 다루웠고, 43-78에서는 道・佛家說이 약간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儒家에 대한 評論을 儒家經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73-92에서는 禪學의 영향을 받은 儒學者들의 諸說에 대한 비판 및 그들 특 히 程朱學派의 行為道德을 논하였고, 93-104에서는 儒家의 觀點에서의 理想的 人物論과 佛敎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結論的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西浦가 歷史와 經典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야, 儒, 佛, 接合에서 야기되는 混亂에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며, 나 름대로의 진정한 儒家精神의 가치관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下册은 上册의 연속이자 上册에서의 未盡한 부분의 補充이라 할 수 있다. 上册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은 上册에서는 내용상 부수적인 몇 부분이 우리나라와 관련된 언급을 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모두 中 國에 관계되는 것인데, 下册에서는 증국사적과 우리나라 사적 그리고 상호관련된 사적이 상당히 있고, 上册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안했던 天 文說이나 詩話評論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下册은 上 册처럼 그렇게 그 내용과 체제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下册의 項目 1-14는 上册의 佛家說과 이어지는 追加部分이며, 15-23은 우리나라 史實에 대한 論評이다. 또한 後尾部 91-164는 詩話評論으로서 中國과 우리나라 詩文에 대한 同質의 내용을 따로 모은 것이다.

이밖에 儒家를 중심으로 한 諸家說 評論 24-40, 禮論을 중심한 政治的 論評 41-58, 新儒學과 政治人物評論 64-86 등은 上册의 未盡한 내용의 補充이며, 여기서는 좀더 現實的이고 實質的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項目에는 엉뚱한 내용이 主題와는 달리삽입되어 있기도 하고, 서로 상관된 내용이 동떨어지게 隔離되어 있기도 한데, 이는 筆寫者의 誤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下册 역시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면, 의도적인 편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西浦漫筆에 佛家說이 범람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내용에 佛家說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지, 佛家를 찬양하거나 佛家에 傾倒된 입장에서의 論說은 아니다. 20) 西浦는 時代狀況을 잘 인식하고 歷史와 儒家經典에 바탕을 든 傳統儒者의 입장을 固守하였다. 그러나 守舊的이 아닌 進步的인, 文弱한 儒者가 아닌 果敢한 改革思想과 實踐的 行動을 重視한 人物로 생각된다.

佛家說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宋代의 이른바 新儒學이 결국은 禪學思想의 영향으로 形成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 新儒學者들의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言說을 痛駁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古代 中國의 歷史나 經典에 대한 是非를 가림에 있어서는 결코 佛家說을 接用하지 아니했다. 단지 宋儒들이 禪學의 영향을 받아서 經典을 천착한 내용에 대하

²⁰⁾ 金春澤이 西浦漫筆에 佛家를 칭찬한듯한 내용이 있다 함은 禪學이 深奧한 境地를 西灣가 이해하고 援用한 것을 말할 뿐, 西浦는 결코 佛家에 歸依했 으면 하는 생각이나, 佛敎를 종교적으로 믿으려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漫筆에서는 佛家의 因果應報說을 부정하고, 道訛이나 休靜을 비관 하고 있다.

여 佛家說과 관련하여 是非를 논한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流配生活로 결국 謫所에서 孤魂이 되고만 까닭이 단순히 西浦가 당시의 黨爭에서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기 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改革思想의 實踐的 行動에서 起因하는 것이었다 할 수있다. 그는 孟子와 韓愈, 朱子 등 傳統的 儒者의 그릇된 점을 과감하게 지적하기도 했지만, 또한 그들의 업적을 인정하는데도 인색하지 아니했다. 특히 그가 諸葛亮을 가장 훌륭한 儒家人物로 推尊한 것은 그의 儒家思想에 의한 實踐的 行動을 높이 評價했기 때문이다.

西浦가 新儒學의 學說을 禪學的인 根源에서 파악하여 이해한 것이나 儒學에 근거하여 나타나는 帝王과 群臣間의 道德行為, 禮儀凡節을 주로 다룬 것도 모두가 時代狀況에 따른 새로운 각도에서의 改革과 實踐을 바랬던 때문이다.

다만, 西浦는 中國의 史實이나 史籍에 있어서는 이른바 正史라고 할수 있는 典籍을 검토하였고, 政治行爲에 대한 것도 儒家經典을 검토하여서 體系的으로 是非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것은 佛家에 관련된 내용이나 野史的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三國史記, 三國遺史, 高麗史 등은 전혀 다루지 않은 점이 遺憾스립다.

끝으로,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西浦는 漫筆에서 歷史, 哲學, 政治, 社會, 天文, 地理 등 광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學問의 영역이 細分化된 오늘날 各 分野에 걸친 구체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럼으로써 그의 先見的 참모습이 더욱 顯明하게 드러나기를 바랐다.

添記;本稿를 넘긴 직후, 나는 불란서의 부셰박사로부터 「金萬重의 西浦漫筆에 나타난 佛敎와 新儒學」(Budhism and Neo-Confucianism in Kim Man-jung's Random Essays (Sŏp'omanpli))이란 長文의 論文을 받 었다. 지난 9月 20日 성균관대학 大東文化研究所에서 주체한 東洋學國際 學術大會에서 그가「金萬重과 三國志」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西浦漫筆의 내용을 언급하였을 때 나는 그의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질문하였고, 그후 개인적으로 그와 西浦의 著述에 관한 논의를 했었다. 10月 초에 불란서로 귀국한 그는 자신의 漫筆研究를 우송하여 주었던 것이다. 이 논문은 앞서 내가 강조한 바 있는 西浦漫筆의 분야별 연구에 특히 문제가 되는 儒佛關係의 파악하기 곤란한 내용을 상당히 깊이 연구하였고, 또 朴晟義교수의 漫筆에 대한 잘못된 인용과 논술을 지적 시정하였으며, 西浦가 漫筆을 언제 저작하였을 것인가 하는 年代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이 논문에서 나타낸 견해에 대하여 내가 본고에서 서술한 관점과 비교하여 볼 때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였고, 그것에 동 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예를 들어 보겠다.

It is in rambling style, with a quaility of spontaneity, allusive in expression and a time enigmatic. If one tried to follow every turn in Kim's thought, one would soon get lost. Some sorting out and rearrangement are therefore needed. I have selected those texts most relevant to the topic of this conference, those which refute the anti-Budhist arguments of ChuHsi's school and, secondly, those which draw a parallel between Budhism and Neo-Confucianism and emphasize the dependence of the latter upon the former. p. 8.

부셰씨는 우선 漫筆을 글자 그대로 파악하여 자연발생적인 내용, 암시적인 표현, 때로 수수께기 같은 것으로 된 漫筆이라고 정의했다. 西浦漫筆의 전체적인 내용을 체재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은 결과이다. 물론同質的인 내용이 상하에 混在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이 역시 어떤 意圖的인 연관의 구룹(groups)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朱子學派의 排佛論議를 反駁한 것, 佛教와 新儒教 間을 並置시

킨 것, 그리고 新儒學이 佛教에 依存했음을 강조한 것들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마치 西浦가 排佛攻擊→儒佛並置→佛教强調의 태도를 가졌던 것이라는 論理를 展開하고자 했기 때문에 設定된 假說이라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假說이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여겼거나, 또는이 假說에 不合하는 내용에 대하여 짙은 意識을 하였거나 하여 이 논문의 結論에서 「西浦는 新儒學의 形成에 있어 오랫동안 풍부하게 그 滋養이 되었던 佛教를 險談하는 자들의 僞善을 비난하고 싶었고, 그것을 마치 실질적으로 그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비관적이었으나 겸 하한 마음으로, 명쾌하나 아량을 가지고 儒家의 이와같은 테도를 지적한 것이 西浦漫簟 著者의 心中의 見解로 보인다」하였다. (He wants also to denounce the hypocrisy of villifying a religion one has fed on so long and feasted on so abundantly, seeing it as very close actually to repuduating oneself. A critical but hospitable mind, lucid but tolerand, such appears to be, at the end of study, the mental out look of the author of the Randon Essay of Sŏp'o. p. 34)

그러나, 西浦가 中體西用 즉 儒教의 本質에 佛教의 活用을 指向하였을 지언정, 결코 西體中用을 생각한 점은 없다는 사실이 重視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西浦는 新儒學의 發展을 바랜 것이고, 佛家의 長 點을 수용하면서도 그것과의 混淆를 防止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했던 것 이라고 하겠다. 西浦가 결코 어떤 문제의 是非를 가릴 때 겸손하고 아 량을 가지고 미적거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